

경주시, ITS 구축완료... 첨단기술 활용 '교통복지' 선도

〈지능형교통시스템〉

민선 7기 지난 4년간 132억 투입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등 도입 주요 교차로 차량정체 해소 도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로 바뀌는 '우선신호시스템'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확대 설치됐다.

지난 11월 13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4년간 추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ITS)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사업비 132억원을 투입해 ▲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 스마트(좌회전, 보행자) 감응신호 시스템 ▲ 스마트 횡단보도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교통망을 구축했다.

먼저 ▲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지역 415개 교차로 교통신호제어가 경주시 교통정보센터와 실시간



경주시교통정보센터에서 근무자들이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

연결돼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 시스템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녹색신호를 우선 부여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경주시가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구축한 ▲ 실시간 신호제

어 시스템은 주말 경주 IC 등 주요 교차로의 차량정체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구축에 나선 ▲ 교통신호개선사업 역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 용강사거리

▲ 터미널네거리 ▲ 금장교네거리 포함 총 35.8km 구간에 걸쳐 교차로 신호체계를 개선했고, 올해는 ▲ 국도35호선 내남면 일원 ▲ 국도28호선 안강읍 일원 등 총 24km 구간을 추가로 개선했다.

이밖에도 ▲ 스마트(좌회전·보행자) 감응신호 시스템을 보문관광단지 내 4개소에 구축했고 ▲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동궁과월지 입구, 두산위브트레지움 입구 등 2개소에 설치했다. 또 ▲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 알림 시스템은 현곡면 새마을금고 앞 1개소에 설치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계적 문화관광도시 명성에 걸맞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상주시

샤인머스켓 캐나다 수출 선적식

상주시 화서면은 지난 11일 중화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중화농협 샤인머스켓 캐나다 수출 선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샤인머스켓 캐나다 수출 선적을 기념하고 올해 50억 원 이상 수출 및 전국 1위의 수출 목표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중화농협조합장은 "최근 샤인머스켓 재배지 증가로 가격 하락을 우려하면서 가격안정을 위해 다양한 유통망 확보와 해외시장 개척, 고품질 명품포도 생산에 모든 역량을 기울였다"라고 말했다.

중화농협 샤인머스켓 공선출하회는 회원 160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매년 샤인머스켓을 캐나다, 중국, 동남아 전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상주(경북)=이상호 기자

안동시

'류복순 침구' 백년가게 선정

경북 안동 풍천면 하회리 '류복순 침구'가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로 선정하고 지난 10일 현판식을 가졌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운영한 가게를 대상으로 경영자의 혁신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영업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침구 제작 경력 38년으로 하회마을 내에서 직접 재배하는 목화만을 사용한 목화솜이불을 제작 판매하고 있는 류복순 대표는 "이번 백년가게 선정은 전통을 미래로 잇는 계기로 삼아 사라져 가는 국산 목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안동(경북)=이상호 기자

경산시, 국제클라이밍파크 개장

경산시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내 건립된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개장식을 지난 12일 가졌다.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는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조성된 부지 7944㎡에 레드월과 스피드 경기 및 볼더링 경기를 위한 실외암벽장과 초보자들의 체험과 강습을 통해 인공암벽을 즐길 수 있는 실내 볼더링장 및 레드월, 옥외 체험장, 주차장 등 국제 규격을 갖춘 시설이다.

/경산(경북)=이상호 기자

전국 주니어 역도 선수권 등

완도군, 4개 대회 동시 개최

청해진스포츠클럽 등 체육시설 확충 전지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 도시 거듭

전남 완도군에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남자·여자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를 비롯한 총 4개 역도 대회가 청해진스포츠클럽에서 열린다.

4개 대회는 제60회 전국 남자 주니어·제13회 전국 여자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와 제24회 전국 중등부 역도 경기대회, 제13회 전국 유소년 역도 선수권 대회 등이다.

대한역도연맹(회장 최성용)이 주최하고 전남역도연맹(회장 장명철), 완도군역도연맹(회장 윤배현)이 주관하며, 완도군과 완도군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남녀 유소년, 중등부, 주니어 역도 선수와 임원 등 총 400여 명이 참가한다.

특히 전국 남녀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를 통해 '2023 세계 주니어

및 아시아 주니어'에 출전할 국가 대표를 선발하기 때문에 대회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역도 대회뿐만 아니라 내년 10월에는 '제104회 전국 체육대회'의 역도 경기도 완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한 내년 5월에는 제62회 전남체전, 제31회 전남장애인체전, 2024년에는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전남 장애인 생활체전,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잇달아 완도군에서 열린다.

군은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청해진스포츠클럽 건립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전지훈련팀 유치 등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좋은 성적을 거두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고창군이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고창군

고창군,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서 수여

람사르 상징 브랜드 6년간 사용

고창군이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수여식에는 고창군 노형수 부군수와 고창군의회 임정호 군의장이 참석했다. '람사르 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로 인정받은 습지 부근에 위치해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지역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고창군은 이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으로 '람사르' 상징 브랜드를 6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고창군은 내륙습지인 운곡습지와 연안습지인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습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등의 복원, 습지 가치 인식 증진 등의 활동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

신안군,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

'퍼플섬', 컬러마케팅 활용

신안군이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시상식에서 문화관광분야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우수한 정책으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시킴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접목 가능한 사업을 발굴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 경영 대회이다.

신안군은 컬러마케팅을 활용한 '퍼플섬' 반월·바지도의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분야에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UNWTO(유엔 세계관광기구)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한국관광의 별 '본상' 수상 등 신안군, 군민이 함께 가꾸고 노력한 결실이 인정받는 것으로 평가됐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밀양시 '지역맞춤 통합하천 공모' 1차 통과

밀양강 1위로 통과

밀양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1차 관문인 경남도 평가위원회에서 밀양강이 1위로 통과했다.

경남도는 3개 사업을 선정해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최종 선정 여부는 오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환경부가 국가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치수, 이수, 수질 및 환경, 생태 등의 분야를 통합해 건당 최소 300억 원에서 최대 4000

억 원 규모로 공모하는 사업이며, 선정 시 국비 50%를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는 도심을 관류하는 하천인 밀양강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개발하는 내용의 '밀양강 모래~가곡 지구 통합하천사업'을 계획해 공모사업에 도전했다.

사업계획에는 밀양시 교통 밀산교 지점에서 가곡동 밀양대교 지점까지 총 13.06km에 치수, 이수, 수질 및 환경, 친수 및 경관사업을 포함한 4개 분야 15개 세부사업을 담았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포항 신규 자원순환종합타운 새 명칭에 '포항에코빌리지'

포항시는 오는 2034년 조성 완료될 목표로 추진 중인 신규 자원순환종합타운의 명칭을 '포항에코빌리지'로 선정했다.

'포항에코빌리지'의 에코(ECO)는 친환경, 생태계를 의미하는 기존 의미에 에너지(Energy), 지역사회(Community), 열린공간(Open space)의 의미를 더한 합성어이다. '포항에코빌리지'는 약 60만㎡의 입지 내 생활폐기물처리시설과 스마트온실, 태양광발전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집적화한 시설로 2025년까지 최종 입지를 선정하고, 2034년까지 조성을 완료해 2035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